

2019

06.24 - 11.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부 삶과 죽음  
김우백  
임대현

2부 남겨진 편지  
유광화  
한달문

3부 그날의 기억  
가병수  
고순택  
김복환  
김학두  
윤치문  
이기학  
최도열  
최원국  
최운주  
황종모

4부 다시 피어나는 희망  
곽윤중  
김영원

우리  
결의  
동학농민군  
이야기

녹두꽃

2019 | 여름 | 36호

취임사

이형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포토토픽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뉴스초점

주요 뉴스 소개

지역단체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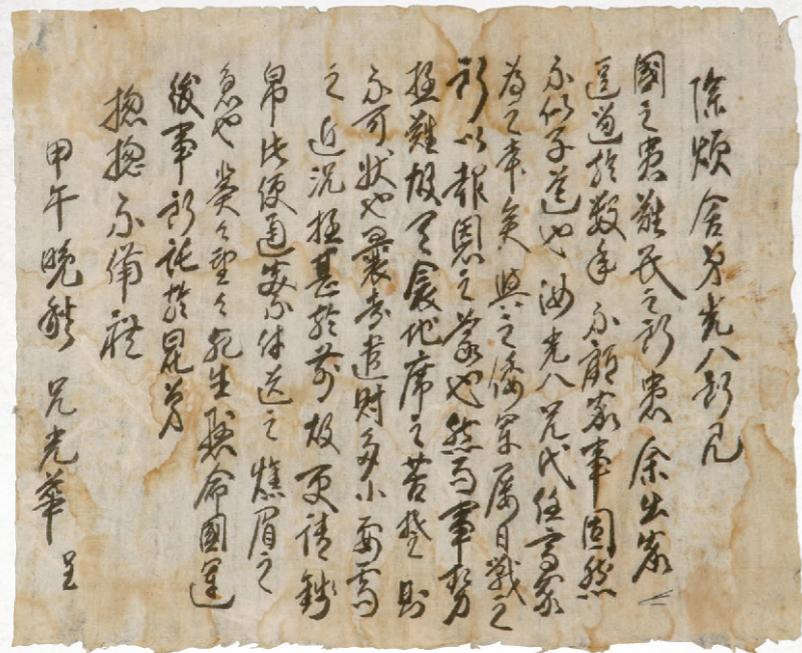
경북 상주지역 / 충북지역의 움직임

청소년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역사

#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팽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팽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義) 때문이네.  
 그러나 형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이룰 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집에 보내 준 재물은 얼마간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 전보다 어려워서 다시 돈과 비단을 이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잘 살펴 보내주게.  
 매우 급한 일이라네.  
 바라건대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일세.  
 뒷일은 형제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다.  
 갑오년 늦가을날 형 광화 보냄.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1894년 29×24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김순덕 기증  
 이 편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혁명에 참여한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희소가치가 매우 큰 귀중한 자료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유광화가 고향의 동생 유광팔에게 보낸 편지이다.  
 유광화는 전라도 나주 일대에서 지도자급으로 활약하다가 1894년 12월 화순 도곡에서 36세의 나이로 전사하였다.



- 02 **역사의 눈**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 04 **취임사**  
이형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06 **포토토픽**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 14 **뉴스초점**  
전주 MBC 특별기획 토론회  
KBS전주방송총국 심층토론  
JTV 시사진단  
전주MBC 시사토론, 초대석  
도울 김용옥 교수 특별강연 개최 및 기념관 방문  
SBS 특별기획 드라마 「녹두꽃」 방영
- 18 **기념재단 포커스**  
기념재단 3기 8차 이사회 개최  
기념재단 4기 1차 이사회 개최
- 20 **지역단체포커스**  
한국(還國)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식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5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125주기 김개남 장군 순국 추모제  
제124주기 전봉준 장군 순국 추모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건립 1주년 기념행사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  
 제52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제125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총회 및 정신선양대회

- 28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경상북도(상주) 지역의 움직임  
충청북도 지역의 움직임
- 34 **청소년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40 **파랑새 소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단체
- 47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녹두꽃**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이번 호 표지 디자인은 지난 5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주관으로 열린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포스터 배경 이미지이다. 이 포스터는 역동적인 태극문양 바탕에 활짝 핀 녹두꽃을 배치하여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라는 기념식 슬로건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취임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4기 이사장을 맡게 된 이형규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125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를 극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였고, 일제의 침략 앞에 국권수호를 위해 일어선 반일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숭고한 역사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反亂事件)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민란(民亂)으로 평가절하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어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결실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로 110년 만에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2010년 설립된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승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였고,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범국민적인 확산을 위해 전봉준 장군 순국 장소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방영 중인 드라마 '녹두꽃' 제작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동학농민군 최초 전승지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지난 5월 11일 정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기념재단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묘역과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 역사적 의미를 교육할 수 있는 연수동, 캠핑장 등으로 구성될 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2004년 9월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9년 12월 그 활동을 종료하였음에도 참여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 등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해 9월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되살렸고, 기념재단이 그 사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새롭게 취임하는 제4기 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삼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前)전라북도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국가 기념일 제정에 따른 정부주관 첫 번째 행사-

정부는 2019년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은 5월 11일로 제정·공포한 이후 정부주관으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최효섭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송범두 전도교 교령, 이이화 역사학자, 정동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윤여준 전)환경부장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기곤 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정남기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이만열 전)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영중 종로구청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전도교 관계자, 관련 단체, 일반시민 등 1,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식전공연 | 고창 우도농악 길놀이



개막공연 | 무장포고문 낭독



개막공연 | 뮤지컬 공연 「금강 1894」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한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자 반외세 민족운동이었다. 이후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의해 패배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은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의병과 3·1운동으로 이어졌고 동학농민혁명의 인본주의 사상과 나라사랑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기념일을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9년 2월에 드디어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공포하였다.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기념식은 고창우도농악 길놀이 식전공연,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들이 단상에 올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직접 낭송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기념식은 제1막〈백성이 하늘이다〉, 제2막〈국민이 주인 되어〉, 제3막〈다시 피는 녹두꽃〉, 폐막〈대동의 세상으로〉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막에서는 양준모 뮤지컬 배우의 동학농민혁명 대의명분이 함축된 무장포고문 낭독과 신동엽 시인이 1967년에 완성한 서사시 ‘금강’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공연도 펼쳐졌다. 제2막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부안군의 ‘꿈의 오케스트라(호남연합)’의 연주와 함께 ‘역사어린이합창단’의 애국가 제창,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경과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념사가 있었다. 제3막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제작된 방송드라마 ‘녹두꽃’의 주인공, 한예리 배우가 신동엽 시인의 ‘금강’을 낭송하였고, 안치환 가수가 동학농민혁명의 내용이 담긴 노래 ‘부활하는 산하’를 불렀다. 아울러 식후공연으로 전주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접놀이’, 정읍시립국악단의 창극 ‘천명’ 수록곡과 고창군의 ‘고창우도농악 판굿’이 펼쳐졌다.



□ 기념사 | 이낙연 국무총리



□ 경과보고 |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국민의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국민의례 | 내빈의 국기에 대한 경례



□ 기념공연 | 안치환 가수 <부활하는 산하>



□ 기념공연 | 한예리 배우 <금강> 시 낭송



□ 폐막공연 | 정음시립국악단 <천명>



□ 내빈



□ 폐막공연 | 전주 기접놀이



□ 관광객

##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입니다.

먼저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목숨을 걸고 일어나셨던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 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유적 복원에 애써오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효섭 이사장님, 천도교 송범두 교령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님, 역사학자 이이화님 및 유관단체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을 같이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님과 송하진 전북지사님, 정동영 대표님, 유성엽, 김두관, 박주현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이었던 것처럼 매도됐습니다. 해방 조국에서도 한동안 ‘동학란’으로 불렸습니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정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유족과 관련 단체와 유관 지역들의 합의를 얻어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에서도, 규모에서도 서유럽의 근대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들은 부패한 지배 세력과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를 없애고 양반과 상민, 상전과 노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청상과부의 재혼을 인정하며, 토지를 균등하게 분작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경복궁을 무단 점거한 채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을 차지하는 일본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한양으로 진격하던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일본군 연합군에게 패배했지만, 그때 불붙은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로 이어졌습니다.



동학민초들의 염원과 분노는 25년 동안 응축됐다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동학을 이은 천도교 대표가 15명이었고, 그 중 9명은 동학농민군 출신이었습니다. 전봉준 장군과 함께 우금치 전투 등에 참여하셨던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 선생은 33인의 맨 앞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10년 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계승됐습니다. 해방 이후의 4·19혁명도, 5·18민주화운동도, 6월 항쟁도 동학정신에 뿌리를 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된 촛불혁명도 잘못된 권력을 백성이 바로잡는다는 동학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주민족 의식과 역량을 일깨우고 길러준 동학농민혁명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영구히 기억돼야 합니다. 민간과 지자체와 정부는 동학혁명의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유적 복원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3천6백여 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찾았고, 1만여 명의 유족을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뜻있는 분들과 지자체가 국민 성금을 모아 동학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처형 장소인 종로 전옥서 터에 장군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학농민군 승전지 정읍 황토현 일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은 민주주의의 근본철학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으로 모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계속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새로운 과제에 직면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도전을 이겨내고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기나긴 과정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동참해주셔야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노라고 동학농민혁명의 선조들 앞에 함께 다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05. 11.

국무총리 이낙연

## 전주 MBC 특별기획 토론회, '새야 새야, 파랑새야'



토론회 참석자 | 왼쪽부터 왕기석, 유진섭, 박맹수

토론회 특별공연 | 왕기석 명창 '천명' 중 한 대목

지난 5월 2일 전주MBC를 통해 방영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기념 특별기획 토론회,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4월 30일 황토현전적지에서 녹화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미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한 방송토론회에는 왕기석(명창), 유진섭(정읍시장), 박맹수(원광대학교 총장)가 출연하였다.

## KBS전주방송총국 심층토론 '동학농민혁명, 이제는 세계로'



지난 5월 8일 황토현전적지에서 KBS전주방송총국에서 특집으로 '동학농민혁명, 이제는 세계로'라는 주제로 심층토론을 가졌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유성엽(국회의원),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유진섭(정읍시장), 이도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출연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JTV 시사진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꽃피다'



지난 5월 11일 JTV전주방송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꽃피다'를 주제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유성엽(국회의원), 조법중(우석대학교 교수), 조상진(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과 역사적 재조명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전주 MBC 시사토론 '동학농민혁명 첫 기념일, 과제는?'



지난 5월 11일, MBC전주방송국에서 '동학농민혁명 첫 기념일, 과제는?'을 주제로 시사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유성엽(국회의원), 김양식(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과정과 의미, 한국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재조명 등이 논의되었다.

##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



□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지난 5월 12일 전주MBC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에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초대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와 기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참여자 및 유족등록사업 등이 방송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기념 도올 김용옥 교수 특별강연 개최 및 기념관방문



□ 도올 김용옥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지난 4월 25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여 도올 김용옥 교수 초청 특별강연이 열렸다. 전주KBS방송총국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협찬한 이번 강연은 “녹두꽃에 피어난 촛불”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특강을 위해 정읍에 내려온 김용옥 교수는 강연에 앞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전적지에 자리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방문하여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 SBS 특별기획 드라마 「녹두꽃」 방영



SBS방송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특별기획한 드라마 「녹두꽃」(48부작)이 4월 26일(금) 첫 방송을 시작으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은 이 드라마는 연기력을 갖춘 출연진과 박진감 있는 전개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드라마 「녹두꽃」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권수호를 위해 일제의 침략에 맞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념재단 3기 8차 이사회 개최



3기 8차 이사회

## 기념재단 4기 1차 이사회 개최



4기 이사회



3기 8차 이사회 임원진 및 관계자

4월 22일(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기념재단 3기 8차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4기 이사 선임과 이사장 및 감사 추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주관으로 치러질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4기 이형규 이사장 구민사(救民祠) 참배



4기 신임 임원진 전봉준 장군 동상 방문 및 참배

지난 4월 3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기념재단 신임 임원 상건례 겸 이사회가 열렸다. 2019년 4월 24일 임기(3년)를 시작한 4기 기념재단 임원진은 황토현전적지 내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위패가 봉안된 구민사(救民祠)와 전봉준 장군 동상 참배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형규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계획,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준비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 환국(還國)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식 '고이 잠드소서! 세기(世紀)를 밝힌 녀이여, 꽃녘이여'

6월 1일에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추모관)에서 환국(還國) 동학농민군 안장식 및 진혼행사가 열렸다. 이번에 안장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에 밀려 전남 진도(珍島)로 밀려 참수(斬首) 후 효시(梟示)되었던 유골을 1906년 일본인 사토마사지로가 식민지 개척을 위한 반인륜적인 인골학 연구를 위해 일본 북해도대학으로 무단 반출되었다. 이후 1995년 일본 북해도 소수민족인 아이누족 평화운동단체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듬해인 1996년 5월 30일 국내로 봉환되었다. 국내로 봉환된 후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사연구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안장이 미뤄지다가 환국(還國) 23년 만에 1894년 동학농민군 전주성 함락 이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동학농민혁명 완산전투지' 일원에 마련된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내 '녹두관(추모관)을 마련하고 이곳에 정중하게 모시게 되었다.

이날 아침 8시 30분 발인식을 마치고 꽃상여에 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할 당시 넘었던 전주 용머리고개와 서문 터를 지나 풍남문에 이르렀다. 풍남문 광장에 이른 꽃상여는 많은 시민들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과 회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제를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이후 추모관이 자리한 전주시 완산동 투구봉에 이르는 구간에서 꽃상여 행진이 엄숙하게 이어졌다. 안장식 직전에 '백년의 귀향'이라는 주제 아래 동학농민군 지도자 진혼제가 거행되었다. 이번 안장식의 명예장례위원장을 맡은 한승헌(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비인도적인 인골 무단반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안장식에 참석한 이노우에가츠오(일본 북해도대학 명예교수)는 반출된 인골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비인도적인 북해도대학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기도 하였다.



꽃상여 행진



추모사 | 한승헌 동학농민혁명지도자유해봉환위원회 상임대표



분향 | 김승수 전주시장



유골 안장 | 전주동학농민혁명 추모관(녹두관)



유골 안장을 위한 행렬

##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5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

지난 5월 31일 동학농민군 전주성 함락으로부터 6월 11일 전주화약일에 이르는 기간에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그 첫 번째 행사로 5월 31일 전주시립완산도서관 강당에서 펼쳐진 제125주년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기념식과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제125주년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기념식과 함께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인권평화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한·중·일 삼국의 역사학자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는 일본의 이노우에가츠오(일본 북해도대학교 명예교수), 다카하시도시오(일본 평화운동가)와

중국의 방민호(중국 연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발표하였다.

6월 1일에는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 문학부 표본창고 캐비닛 위 종이상자에 쌓여 방치되다가 발견되어 1996년 5월 30일 국내로 봉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는 사업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밖에도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탐방, 동학농민혁명 기념전시회, 동학농민혁명 시민체험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 제125주기 김개남 장군 순국 추모제



▣ 제125주기 김개남 장군 순국 추모제

지난 4월 13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개남 장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김개남 장군 묘역'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김개남장군추모사업회추진위원회(대표 손주갑)에서 주관하였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심재식 동학농민혁명정읍시유족회 회장 등 내외 귀빈과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김개남 장군의 올곧은 기개와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렸다.

## 제124주기 전봉준 장군 순국 추모제



▣ 추모제례

▣ 추념사 | 유진섭 정읍시장

지난 4월 24일에 전봉준장군 단소(정읍시 이평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 순국을 기리는 제 124주기 추모제가 엄숙하게 치러졌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해철) 주관으로 거행된 추모제는 제례와 함께 전봉준 장군 행적 소개, 추념사,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내빈 귀빈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건립 1주년 기념행사



▣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원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지하철 5~6번 출구 인도에 서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앞에서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이사장 이이화) 주최로 건립 1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지난 해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기 기일에 맞춰 제막된 동상은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과 동상건립위원회의 범국민적인 기금모금 활동을 통해 건립되었다. 동상이 건립된 이곳은 당시 전옥서(典獄署) 자리로, 건너편 의금부 권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전봉준 장군이 1895년 4월 24일 새벽 이곳에서 교수형에 의해 순국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종로구가 지역구인 정세균 국회의원(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신영우 동상건립위원회 상임이사 등 많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고귀한 넋을 기렸다.

##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



동학농민군 행렬 재현



축사 | 유기상 고창 군수



동학농민군 무장음성 입성맞이

지난 4월 25일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무장기포지와 무장음성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출정식, 무장포고문 낭독, 헌화를 마치고 무장기포지에서 무장현 관아와 음성까지 동학농민군 진격로(7.2km)를 따라 무장음성에 이르기까지 갑오년의 행렬을 재현하였다. 무장음성 관문인 진무루(鎭茂樓)에 이른 참가자들은 무장음성 입성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무장객사 앞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기념제는 제125주년 무장기포 기념식, 제12회 녹두대상 시상식, 기념 문화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수여된 제12회 녹두대상은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고(故) 진기홍(전 광주체신청장) 선생에게 수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 군수, 김영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성경찬·김만기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황군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이화 역사학자, 최효섭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전해철 전북준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전국 각 지역에서 고창을 방문한 유족회 회원들과 많은 고창지역 주민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



동학농민군 행군 재현



백산봉기 기념식



문화예술공연

지난 5월 1일 부안군 백산성과 백산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회장 배의명) 주최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가 열렸다. '동학혁명백산창의비' 앞 헌화로 시작한 기념대회는 동학농민군 행군 재현, 제125주년 백산봉기 기념식, 식후 문화공연으로 이어졌다. 백산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백산격문 낭독, 동학농민군 4대 행동강령 낭독, 동학농민군 12개조 강령 제정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용선 고창유족회 회장, 박종신 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내외 귀빈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 제52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 제52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지난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정읍시 주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주관으로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제52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렸다. 11일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특별공연으로 정읍우도농악 5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제9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황토현에서 올리는 511인의 합성, 특별기획 공연 '갑오백성' 등이 펼쳐졌다. 이날 수여된 동학농민혁명 대상 개인부문은 원평 구미란전투지 발굴 및 환경정비, 김덕명 장군 추모비 건립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데 기여한 고(故) 최순식 선생이 수상하였고, 단체부문은 정읍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선양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사)갑오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박종신)가 수상하였다. 12일에는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서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진혼 살풀이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황토현전적지 내 구민사(救民祠)에서 갑오선열에 대한 제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밖에도 기념제 기간 중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 역사 퀴즈대회를 비롯하여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 황토현 전국 청소년 토론대회, 짱깨발랄 페스티벌, 동학농민혁명 수상작 UCC 수상작 시상식 및 영상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제125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 기념식

지난 5월 27일 전남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공원에서 '제125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이 열렸다.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조복래)와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상식)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국민의례,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기념사, 축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축전과 함께 유두석 장성 군수,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 조복래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이상식 광주·전남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하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최효섭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진윤식 (사)고창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전국기념사업 단체 임원 및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의 뜻을 기렸다.

##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총회 및 정신선양대회



▣ 총회



▣ 초청강연 | 고석규 목포대 총장

지난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고창에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총회 및 정신선양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효섭 이사장 선임을 승인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강좌, 추모제 및 유족회 발전 방향 토론회 등이 있었다. 한편, 정신선양대회와 함께 열린 이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총회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발돋움한 후 두 번째 임원진이 임명되었다. 이날 신임 임원진에는 이사장 최효섭, 감사 이정일·최정길, 이사 이정태, 송기평, 주영채, 문형식, 김창식, 함기영(사무총장), 이정신, 정해곤, 최이기, 김영웅, 문영식, 송영례, 김용선, 장원명이 선임되었다.

## 경상북도

### “경북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강좌 및 시민토론회 열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어진 경상북도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살펴보는 역사강좌 및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경북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김재원 국회의원, 상주문화원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한 이 행사는 세 차례에 걸쳐 역사강좌와 시민토론회가 펼쳐졌다. 첫 번째 강좌(3월 22일)는 이이화 역사학자의 “한국 근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좌(4월 12일)는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의 “경북(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강좌 및 시민토론회(4월 26일)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 - 경상도 상주지역 기념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강좌와 함께 열린 시민토론회는 김철수 상주문화원 원장이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선 전)상주향토문화연구소장, 채종한 위덕대 교수, 우규섭 상주시청 문화예술과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상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참고] 2004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2010년~2013년 전국을 대상으로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국 353개의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확인되었다. 그 중 대구·경북지역에는 30곳의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이 확인되었다.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과 상주지역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26일 125년 만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정부주관 기념식이 지난 5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또한 중앙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드라마 '녹두꽃'을 제작·방영함으로써 갑오년 역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인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전 민족적인 반일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 시민 토론회

#### ◎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표

합계	서울·경기	강원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남	충북
353	4	13	4	30	83	156	40	23
백분율	1.1%	3.7%	1.1%	8.8%	23.4%	44%	11.3%	6.5%

#### ◎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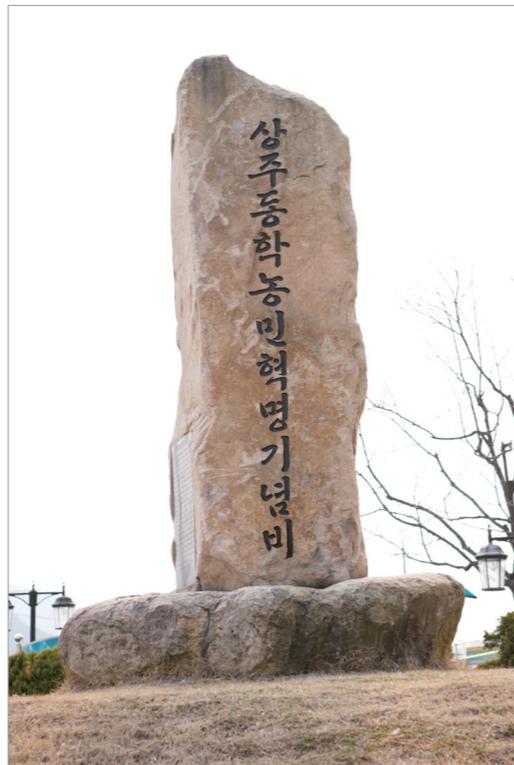
순번	유적 및 기념시설물명	역사적 의의	소재지	비고
1	상주 관아 (尙山館, 太平樓) 터	동학농민군 점령지	상주시 남성동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상산관)
2	상주 화남 광주원 터	동학농민군 처형지	상주시 화남면	
3	상주 낙동 일본군 병참소 터	일본군 병참소(兵站所)	상주시 낙동면	낙동파출소
4	상주 남사정 터	동학농민군 처형지	상주시 남성동	
5	상주 동학농민혁명기념비	기념시설물	상주시 무양동	
6	상주 모동 증모장터	동학농민군 처형지	상주시 모동면	
7	상주 모서 김현영 집 터	농민군 근거지	상주시 모서면	
8	상주 화남 임곡리	동학농민군 근거지	상주시 화남면	
9	상주 화서 화령장터	동학농민군 처형지	상주시 화서면	
10	상주 동학교당	1920년대 종교단체	상주시 은척면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1호

## 경북(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 상주관아 : 임란북천전적지 전경

상주관아는 1894년 9월 20일 무렵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점령하였던 곳이고, 농민군이 패퇴한 다음에는 소모영이 설치되어 농민군 진압을 진두지휘하였던 곳이며 농민군 지도자 강선보 등 많은 농민군들이 처형된 곳으로 현재는 <상주임란북천전적지>기념공원에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다.



▣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

2008년 <상주동학농민기념사업회>를 비롯한각급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 놓은 기념비

## 충청북도

### 충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충북학포럼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4월 10일 충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충북학연구소 주최로 '충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충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와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정삼철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구왕희 보은 동학농민기념사업회장, 박진수 보은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충북도·청주시·보은군 문화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은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태평천국과 함께 아시아 3대 혁명으로 꼽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위상을 갖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라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만큼 이제라도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세워나가기 위한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참고] 동학농민혁명에서 충북지역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위상은 크다. 충북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를 이루는 '보은 취회(報恩聚會, 1893. 3. 11.)가 열린 곳이다. 보은에서 열린 이 집회를 통해 '척왜양(斥倭洋) 기치가 전면에 제시되었으며,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다. 또한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점령과 청일전쟁 도발 등에 따라 단행된 2차 동학농민혁명 때 손병희를 통령으로 이끈바 북점 동학농민군이 반일항전인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충북지역에는 보은군 종곡리 북실전투지를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 ◎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표

합계	서울·경기	강원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남	충북
353	4	13	4	30	83	156	40	23
백분율	1.1%	3.7%	1.1%	8.8%	23.4%	44%	11.3%	6.5%

◎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

순번	유적 및 기념시설물명	역사적 의의	소재지	비고
1	장내리 집회 터(보은취회 터)	동학농민군 집회 장소	보은군 장안면	
2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북실전투 옆 기념공원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	용산전투지	동학농민군 전투지	영동군 용산면	
4	동학혁명군재기포기념비	동학농민군 기포지	옥천군 청산면	
5	갑오년동학농민혁명전적지비	동학농민군 전투지	옥천군 군북면	
6	무극장터 동학농민군 집결지	동학농민군 집결지	음성군 금왕읍	
7	손병희 선생 유허지	지도자 손병희 생가	청원군 북이면	
8	손천민 생가 터	지도자 손천민 생가	청원군 남일면	
9	청주성 전투지	동학농민군 전투지	청주시 상당구	충북유형문화재 제15호, 제110호

충북지역 주요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 보은동학농민기념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탑(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 충북 보은군 북실전투지



▣ 미릉댕이(충북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의 제2차 기포시 북적 산하의 농민군이 합세한 곳

# 녹두꽃, 다시 피다

기념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체험하였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녹두장군 되어보기' '아기접주 캐릭터 공예품 만들기' '녹두씨앗 심기'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드게임' '퍼즐 맞추기' '녹두 골든벨' '유적지 답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북 안동 연남초등학교 6학년(2019. 03. 26.)



경북 구미 남계초등학교(2019. 03. 27.)



정읍 초록어린이집(2019. 03. 29.)



전북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2019. 03. 29.)



전북 완주군 용봉초등학교(2019. 04. 02.)



전주 효자초등학교(2019. 04. 08.)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 6학년(2019. 04. 12.)



광주광역시 봉주초등학교 6학년(2019. 04. 12.)



정읍 중앙유치원 7세반(2019. 04. 18.~ 04. 19.)



인천 경인대 부설초등학교(2019. 04. 23.)



부안 격포 초등학교(2019. 05. 02.)



순창 옥천초등학교 5학년(2019. 04. 19.)



경기도 광주 성문박학교(2019. 04. 19.)



정읍 신태인 중학교(2019. 05. 07.)



완주 간중초등학교(2019. 05. 08.)



고창 영선고등학교(2019. 05. 13.)



정읍 이평 초등학교(2019. 05. 09.)



고창 무장초등학교(2019. 05. 20.)



익산 이리동북초등학교(2019. 05. 22.)



김제 서고등학교(2019. 05. 15.)



군산 월명중학교 1~2학년(2019. 05. 17.)



정읍 새싹유치원(2019. 05. 21.)



광주 풍향초등학교(2019. 06. 03.)



임실 고등학교(2019. 05. 17.)



군산 한들고등학교(2019. 06. 01.)



##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주요 방문단체는 정읍시 고부자애원(11명), 대순진리회/안양회관(22명), 대순진리회/군포방면(30명), 이천 문화원(45명), 창원대학교 사학과(70명),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20명), 송탄 장로교회(24명), 익산 석촌노인대학(27명), 익산 행복한사람들(12명), 제천·충주 기차여행(279명), 노무현재단 양산지회(44명), 서울시 노원구청 의회사무국(31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35명), 꿈담기 역사기행(26명), 정읍 신창어린이집(20명), 계명대 문예창작학과 문학기행(71명), 충남 논산시 교육도서관(35명), 강원 춘천시 상이군경회원(41명), 정읍 한솔초등학교 3학년(150명), KBS방송 제작진(25명),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47명), 전주제자교회(80명), 정읍시청(역사문화체험)(72명), 충남대학교 국사학과(42명), 정읍 동신초등학교(127명), 전남 강진군 강진문화원(320명), 신태인 초등학교 3학년(32명), 이리 동북초등학교(70명), 군산 당북 초등학교(35명), 경북 농민사관학교(25명), 한국고전문화원, 나고야시 한국역사답사단(37명), 전주중학교(68명), 행정안전부, 전국 공무원(220명), 익산 이리백계초등학교(115명), 전주 대정초등학교(105명), 전주중앙초등학교(22명), 광주 윤리초등학교(89명), 전라북도 인재개발원(38명) 등이다.

## 기념관 방문단체



1 2

① 정읍시 고부자애원(11명)

② 대순진리회/안양회관(22명)

3 4  
5 6  
7 8

③ 대순진리회/군포방면(30명)

⑤ 창원대학교 사학과(70명)

⑦ 송탄 장로교회(24명)

④ 이천문화원(45명)

⑥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20명)

⑧ 익산 석촌노인대학(27명)

기념관 방문단체



9	10
11	12
13	14

- ⑨ 익산 행복한사람들(12명)
- ⑪ 노무현재단 양산지회(44명)
- 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35명)

- ⑩ 제천·충주 기차여행(279명)
- ⑫ 서울시 노원구청 의회사무국(31명)
- ⑭ 꿈담기 역사기행(26명)

기념관 방문단체



15	16
17	18
19	20

- ⑮ 정읍 신장어린이집(20명)
- ⑰ 충남 논산시 교육도서관(35명)
- ⑲ 정읍 한솔초등학교 3학년(150명)

- ⑯ 계명대 문예창작학과 문학기행(71명)
- ⑱ 강원 춘천시 상이군경회원(41명)
- ⑳ KBS방송 제작진(25명)

기념관 방문단체



21	22
23	24
25	26

- ㉑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47명)
- ㉒ 정읍시청(역사문화체험)(72명)
- ㉓ 정읍 동신초등학교(127명)

- ㉔ 전주 제자교회(80명)
- ㉕ 충남대학교 국사학과(42명)
- ㉖ 전남 강진군 강진문화원(320명)

기념관 방문단체



27	28
29	30
31	32

- ㉗ 신태인 초등학교 3학년(32명)
- ㉘ 군산 당북초등학교(35명)
- ㉙ 한국고전문화원, 나고야시 한국역사답사단(37명)

- ㉚ 이리 동북초등학교(70명)
- ㉛ 경북 농민사관학교(25명)
- ㉜ 전주중학교(38명)

기념관 방문단체



33	34
35	36
37	38

- ㉓ 행정안전부, 전국 공무원(220명)
- ㉔ 전주 대정초등학교(105명)
- ㉕ 광주 윤리초등학교(89명)

- ㉖ 익산 이리백제초등학교(115명)
- ㉗ 전주 중앙초등학교(22명)
- ㉘ 전라북도 인재개발원(38명)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3월 22일	대경일보	김재원 의원,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역사강좌 개최
3월 26일	스타데일리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 전시'
3월 26일	전북일보	정읍에서 만나는 동학농민운동 역사의 현장
3월 27일	스포츠조선	'녹두꽃' 조정석X윤시윤X한예리 첫 호흡부터 '완벽 그 자체'
3월 28일	전라일보	동학 민족운동의 성지에서 26년 만에 태어난 '주권 탈환'
3월 29일	한겨레신문	"3·1 민족대표 중 9명 동학혁명 지도자였죠"
4월 2일	YTN	동학농민군으로 돌아온 조정석... '녹두꽃', 4월 26일 첫 방송
4월 5일	전북일보	고창군, 25일 무장기포지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행사
4월 5일	스포츠조선	'녹두꽃' 최무성, 민초들의 영웅 '전봉준' 된다 '압도적 아우라'
4월 8일	연합뉴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4월 9일	충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조명
4월 11일	울산저널	우금티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동학농민군
4월 11일	News Daily	충북도, '동학'의 가치 '재발견' 작업 시작한다
4월 15일	전북중앙일보	동학혁명 기념사업 활발
4월 15일	충북일보	충북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온힘
4월 17일	베타뉴스	고창군 청소년,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그날의 정신을 배우다
4월 19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 연구논문 재공모
4월 19일	서울경제	'녹두꽃' 단체포스터, 동학농민혁명 기록 시각적 구현 성공 '압도적'

##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4월 23일	스포츠포스트	'녹두꽃' 정현민 작가가 직접 밝혔다 "왜 동학농민혁명인가"
4월 29일	뉴스메이커	정읍시, '도올 김용옥'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 기념 특별강연
4월 29일	전북일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고창서 동학농민혁명 강의
4월 30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적 기반
4월 30일	전북일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선정
5월 3일	스포츠포스트	'녹두꽃' 전봉준의 촌철살인 대사,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필연적이었다
5월 3일	전북일보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
5월 3일	전민일보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 개최
5월 7일	농민여성신문	"세상을 바꾸자" 동학농민들의 비장한 함성이 맴도는 그곳 '정읍'
5월 8일	NEWSis	11일 동학농민혁명 첫 국가기념일 청주서 '녹두꽃 핀다'
5월 9일	Breaknews	동학농민혁명 단초 '정읍 만석보' 습터 완공
5월 9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첫 국가기념일
5월 10일	OhmyNews	광화문 광장에 동학농민혁명 함성 울려 퍼진다
5월 10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필요
5월 10일	일요신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특별 전시회 개최'
5월 12일	전북일보	광화문에서 핀 '녹두꽃'...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 개최

##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 사명	기사 제목
5월 13일	서울경제	이낙연 "촛불혁명, 백성이 잘못된 권력 바로잡는 동학정신의 표출"
5월 15일	서울경제	'녹두꽃'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딱맞춰 '황토현 전투' 대승 그린다
5월 16일	뉴스포털1	동학농민혁명 황토현전승일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식 및 축하공연 서울과 정읍서 열려
5월 16일	경북매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6일	대구신문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제
5월 16일	전민일보	제52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성황
5월 17일	전라일보	근대역사박물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특별세미나
5월 21일	전북일보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전북의 정체성 정립·가치 찾기 나선다
5월 23일	nsp통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 동학농민혁명展' 개관
5월 23일	쿠키뉴스	이형규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의 프랑스 시민혁명"
5월 27일	경향신문	일본서 찾아낸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25년만에 추모관 안장
5월 27일	연합뉴스	농악으로 풀어낸 동학혁명... '광대, 1894' 고창서 토요일 공연
6월 3일	연합뉴스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125년 만에 전주에서 영면
6월 3일	전북일보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기념, 뜻깊은 국제학술대회 열려
6월10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물·자료 구매 접수
6월10일	울산저널	금산의 동학농민군 전라도 북부 지역 장악

##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및 활동내용		운영일정	장소	참여대상 /인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내 친구, 녹두장군'	녹두장군 되어보기, 공예품 만들기, 녹두씨앗 심기	3~6월, 9~11월 (수·목·금) 60분 소요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미취학 아동~ 초등 2학년 /40명 내외(단체)
	청소년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Go, Go 1894'	동학농민혁명 이해, 나만의 예술작품 만들기, o·x 퀴즈	3~6월, 9~11월 (수·목·금) 이론 1시간/ 체험 2시간	상설전시실, 교육관	초등 3학년~ 중·고등학생 /40명 내외(단체)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	동학농민혁명 이해, 도전! 골든 벨 보드게임	3~6월, 9~11월 (월·화) 이론 1시간/ 체험 2시간	전국 초등학교 방문 운영	초등학생 전 학년 /40명 내외
교원직무 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전문 강사의 강연 및 유적지 답사)		7월 25~26일/ 1박 2일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초·중등 교원 /40명 내외	
생생 문화재	1박 2일 답사 '황토현에서 1박 2일'		5월 25일~26일 6월 15일~16일 6월 29일~30일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일반인(성인 가족) /30명 내외	
	코레일 연계 답사 '열차타고, 갑오세 가보세'		5월 31일(금) 6월 21일(금) 10월 11일(금)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중고생 /30명 내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황토현에서 광화문까지'		9월 10일(화) 10월 15일(화) 11월 5일(화)	기념관, 교육관	전국 중학생 /30명 내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학예사가 되어보기'		9월 17일(화) 10월 22일(화) 11월 22일(화)	기념관, 교육관	전국 중학생 /30명 내외	

### ※ 교육·체험 프로그램 신청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접속 → '교육체험'이동 → 신청하기 → 담당자와 일정 확인  
전화 문의 : 063-536-1894(기념관) 대표 이메일 : 1894@1894.or.kr

### ※ 기념관 전시해설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1894.or.kr)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동 → 관람예약 또는 전화문의(063-536-1894)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온라인 접수 또는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